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전문가 주의와 아마추어 정신에 대하여

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빈번하게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는 '고용된' 사람들이다. 전문가가 처한 고용된 상황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조금도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로 강조함으로써 소용 가치를 높이는 태도를 통해서만 증된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보여 주는 더 심각한 모습은 세상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에 대한 결정권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식과 경험의 쓸모는 본래 아무도 독점할 수 없는 것이어서 독점하려고 할수록 독단과 독선의 길로 빠지게 된다. 최근에 사회 곳곳에서 불거지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얼마나 전문가 주의에 빠져 있으며 전문가 의존증을 심하게 앓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체육계에서부터 문화계, 교육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학계에서도 몇 사람이 모든 결정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당연시하면서 불행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전에 만난 한 '전문가'의 모습도 다르지 않았다.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질책만 할 뿐 설명이나 대화는 없었다. 화근은 전문가의 취향에 맞지 않는 어구와 표현들이었다. '전부 다 바뀌라'라는 말로써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질책 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능해한 여지없이 드러낸 꼴이었다. 그런 와중에 안타깝게도 무엇을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으니, 이들은 앞으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다. 변화는 전문가의 일방적인 지시와 질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전문가에 대한 이반 일리치(1926-2002)의 비판은 새겨들여야 한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일리치는 "전문가가 늘어날수록 개인은 무력해진다"라고 일갈한다. 전문가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 없는가를 결정하고 그 필요의 가치를 독단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문가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결정해야 유리한 것을 '필요한 것'으로 둔갑시킨다. 우리가 경험한 4대강 개발 사업이 경우에 해당하는 좋은 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 주의의 권력을 키우는 고질적인 구조는 굳어진다. 그 결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전문가를 찾게 되고, 개인은 점점 미성숙한 '고객'이 된다.

이런 전문가 주의에 대항하는 것이 아마추어 정신이다. 아마추어는 흔히 수준에 못 미치는 미숙함과 부족한 능력에 대한 표현으로 쓰인다. 하지만 어원을 보면 아마추어는 라틴어로 사랑을 뜻하는 아마르에서 나온 말이다. 권위, 이익, 명예 때문이 아니라 계산 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마추어다. 바로 이런 자유로운 즐거움과 기쁨, 순수한 열망과 감수성이 독단적인 전문가 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다.

아마추어는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진실을 위한 열망으로 존재하기에 가능하다. 그렇다고 모든 전문직 직업인이 무조건 아마추어와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진실을 위한 자유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아마추어다. 문제는 한 줌도 안 되는 전문성을 팔아서 사람들 눈을 가리고 무능하게 만드는 독단적 전문가들이다. 아마추어의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으로 곳곳에 퍼져 있는 맹목적인 전문가 주의를 넘어서야 할 때

법조칼럼

불륜의 고고학적 탐구



김상훈  
변호사

불륜의 유형과 원인을 각 성장 단계 미충족 욕구와 연결시키는 것인데, 약간 억지스럽기도 하지만 일견 고개가 끄덕여 지기도 하였다. 먼저 아이의 성장 단계와 발달 욕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첫째 애착(출생부터 18개월). 아이는 태어난 후 생존을 위해 부모에게 붙어있으려 하고, 필요할 때마다 그 욕구를 채워주며 따뜻함을 제공하는 부모를 통해 안위감과 안정감을 얻는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위 애착 관계를 맺지 못하면, 아이는 회피하는 자(avoider)가 되거나 매달리는 자(clinger)가 된다. 회피는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접촉을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고, 매달림은 버림받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들러붙는 것이다.

②둘째 탐험(만 18~24개월). 아이는 소근육이 발달하여 기고 걷게 되고, 호기심에 따라 새로운 세계와 환경을 경험한다. 부모는 아이의 방식대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줘야 하고, 또 불안해서 겁에 질려 돌아가지 싶어할 때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과잉 보호로 전자의 자유를 허락받지 못한 아이는 도망가는 자(distancer)가 되고, 소홀함으로 후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는 쫓아가는 자(pursuer)가 된다.

③셋째 정체성 단계(만 2~4세). 안전

감, 엄격-흘어짐, 경쟁-수동적 타협의 경향성을 띤 채 성장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욕구 결핍으로 성장하여 가정을 꾸린 이들이 여러 이유로 불륜에 이를 때, 묘하게도 선택된 불륜 파트너가 유년기 자신과 동일 결핍을 경험했을 가능성과 경향성이 있다는 것이다. 회피하는 자는 쫓아가는 자에 끌리기 쉽고, 엄격한 자는 흘러지는 자에 매료된다는 식이다.

상간자 이혼 사건을 원고로든 피고로든 진행할 때 주로 듣고 주목하게 되는 대상은 파탄된 가정생활, 외리인과 배우자의 관계였지, 불륜 관계와 불륜 파트너에 대한 이혼 원인 부정 행위 입증 외에는 눈요 관심 밖이었던 것 같다. 불륜은 필연적으로 2인을 전제로 한 관계 맺기인데, 새로운 관계 맺기에 숨어 있는 체결 원리와 유형이 있다니 놀랐다.

불륜은 배우자 및 자녀 등 기존 가족 관계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될 것이기에, 불륜의 체결 원리를 안다는 것은 결국 기존 가족 관계의 치유 방향과 원리를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될 것이다. 세미나 교재 결론 부분에 기재된, 성공적 부부 관계는 부부가 각자 유년기를 완성시키며 서로 치유하는 관계라는 부분이 새겨들을 만하다.

기고



김기태  
전남도의원

혁신 성공은 불법·불공정 거래 근절부터

기업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동안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이제부터라도 대기업의 갑질을 막고, 중소기업자들의 지위와 협상력을 제고해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 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하도급 갑질은 또 다시 폭로됐다. 대표적 불공정 사례를 보면, 한 대형 건설업체는 노무비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사를 납품받고도 노무비 60%를 사전 은폐한 채 하도급 입찰을 실시했다. 반값도 안 되는 비용으로 공사를 하청 업체에 떠넘긴 것이다. 나아가 이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사건은 결국 무혐의 처리됐다. 또 당초 신공법을 약정해 놓고 공사가 시작되자 재래식 공법을 강요하고 끝내 계약을 해지해 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대형 원도급 업체 직원들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이 유독 심

했다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당시 사회 일각에서는 일명 '대기업 갑질 피해 증언 대회'가 개최됐다. 원도급사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받자도 원도급사도 아닌 하도급사가 수십억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떠앉았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원도급사는 잘못을 감추기 위해 강제 계약 파기 위협, 기성 지급 중지, 부당한 물량 축소, 각서 등 불법·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 또 다른 중소기업체는 현장·안전 관리에 책임 있는 원도급사가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하도급사에 전가해 결국 도산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같은 건설 현장의 불공정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근절되지 않는 대기업 갑질로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체 늘고 있다. 정부조차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소관 법률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종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는 한 중소기업체 관계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현 시스템은 점검이 필요하다.

하도급 업체가 도산한 현장은 구조적

인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피해를 당한 하도급사는 대기업 갑질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 횡포는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건설 산업은 혁신의 2018년을 지나 2019년 격변이 예상된다. 앞다시피 정부는 지난해 노사정 합의에 따른 건설 산업 생산 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는 후속으로 업역 규제, 업종 체계 개편을 위한 세부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경제 원동력이 되었던 건설 산업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이러한 정부의 혁신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의 불법·불공정 거래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혁신의 노래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 올 뿐이다. 우리 사회에 건전하고 투명한 건설 산업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 나서야 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원팀임을 잊지 말자.

社說

전두환 국립묘지행 법으로 확실히 막아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안장 불가'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이다. 내란죄를 선고받았던 전 씨가 사망한 뒤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첫 공식 판단인 셈이다.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 의원은 최근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두환 등 원형 질서 파괴범은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이미 있었던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격 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회신했다는 것이다. 전 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반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됐다.

문제는 이 같은 판단이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 보훈처의 현재 '입장' 일뿐이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전 씨의 경호실장을 지내며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에 일조했던 안현태 씨의 경우,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복권됐다는 이유로 2011년 국립묘지에 묻힌 바 있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전 씨의 안장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권에 따라 '고무줄 결정'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천정배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 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훈처가 이제라도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전두환·노태우 씨의 국립묘지행을 보다 확실히 막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 때 관련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옐로우 시티' 은행나무 길 굳이 없애야 하나

장성군은 지난 2014년부터 '옐로우 시티'(Yellow cit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사계절 노란 꽃과 나무가 가득한 자연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노란색을 지자체의 상징으로 브랜드화한 이 프로젝트는 국내 최초의 색채 마케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장성군이 가을이면 노란 단풍으로 황금빛 터널을 이루는 장성읍내 은행나무 길을 없애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을 성산리 일대 길이 600m에 이르는 가로수 길의 50년생 은행나무 130여 그루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50여 년 전 광주·장성·서울을 잇는 국도 1호선 주변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행나무를 심어 조성한 이 구간은 가을이면 백양사와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몰리는 단풍 명소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은행나무를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부 주민과 상인들이 열매의 악

취는 물론 나무뿌리가 상가 건물과 담장에까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주민들은 시골 마을과 어우러진 은행나무 풍경이 명품 가로수 길로서 가치가 충분하며 자연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찬반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반세기 이상 자발적으로 키워 온 은행나무들을 일부 피해가 있다고 하여 허위자침에 베어 내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 더욱이 은행나무는 '옐로우 시티'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다. 도로 확장 등에 따라 수차례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주민들이 끝까지 지켜내 관광 명소가 된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의 사례를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은행나무로 인한 피해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더라도 경관 가치가 높은 향토 자원을 지켜내야 하지 않겠는가.

無等鼓

시대정신을 이끌어가는 철인(哲人)들의 사고(思考)에는 일정한 트렌드가 있는 듯하다. 특히 기존의 신화(神話)를 대체해 우주의 기원과 세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첨단 과학의 경우 뚜렷한 방향성이 보인다. 5-6년 전만 해도 11차휴먼 유주를 주제로 하는 '다중우주'와 과학계의 화두였다면, 지금 과학자들의 관심은 유전자 조작을 통한 새 인류의 탄생에 쏠려 있는 것 같다.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유작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에서 '우리는 단순히 유전자 이상의 존재들'이라고 밝혔다.

유전자 편집

호 초인이 등장할 경우 가난 등의 이유로 개량되지 못한 인간들은 하찮은 존재로 전락할 것으로 본다. 이 같은 견해는 최근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제시한 초인론-인공지능(AI)과 생명공학이 결합되면 인류는 소규모의 슈퍼휴먼 계층과 쓸모없는 호모시피엔스 대중의 하위 계층으로 양분된다-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최근 유전자의 특정 부위를 잘라 내 편집을 가능케 하는 '크리스퍼-캐스9' 기술이 개발되면서 초인의 등장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리 등의 문제가 있지만 '유전적으로 진화된' 슈퍼휴먼의 탄생은 '명분'만 있다면 지구촌 어디선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얼마 전 중국에서 '에이즈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있도록 유전자가 편집된' 아이가 탄생한 것이 좋은 예다.

지금도 권력과 자본가는 지구촌 곳곳에서 슈퍼휴먼으로 군림하며 일반 대중과 마찰을 빚고 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궁극의 초인간이 등장할 미래 세계의 권력 관계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속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처 부 220-0632 경 처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납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자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FAX 02-773-933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